

##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應答

金 仲 秀

\*

金在源 教授의 논평은<sup>1)</sup> 筆者의 拙稿(1987)<sup>2)</sup> 에서 다루어진 두 課題, 즉 技術進歩와 雇傭吸收力間의 量的關係 및 技術進歩와 勞動形態別 人力需要間의 質的關係에 관한 분석내용 중 전자에 국한되어 있다. 金教授의 논평은 資料의 選擇 및 模擬變數(proxy variable) 사용상의 문제, 實證分析의 定式化 및 推定問題, 推定

結果의 解析 및 政策示唆點에 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제로 金教授가 지적한 論評 및 提案들은 필자의 논문에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實證研究에서 흔히 대두되는 문제점들로서 향후의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며 몇 가지 논평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일관성 문제는, 金教授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微視分析의 경우에는 생산량에 상응하는 投入要素別 데이터가 수집가능하나, 總量分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雇傭 및 賃金 등 勞動市場 資料는 國民總生産 및 資本스톡 資料 推計의 경우와는 상이한 母集團을 대상으로 한 標本調査에서 수집되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추계된 「파라미터」는 微視的 意味를 충분히 내포하지는 못할 것이다<sup>3)</sup>.

따라서 總量模型이 概念的으로 微視的 理論에 근거를 두었을 경우에도 실증분석에 사용

筆者: 本院 研究委員

- 1) 金在源,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論評, 『韓國開發研究』, 1987 가을호.
- 2) 金仲秀,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韓國開發研究』, 1987 봄호, pp 42~67.
- 3) 統計的으로 볼 때, 이 문제는  $y = X\beta + u$ 의 推定式에서  $X$ 變數들이 計測誤差(measurement error)를 갖는 경우에 비유될 수 있으며(즉  $X = \tilde{X} + Z$ , 여기서  $Z$ 는 計測誤差), OLS 方法으로 위의 방정식을 추정하였을 경우  $\beta$ 의 推定係數는  $X$ 와  $u-Z\beta$ 의 상관정도에 따라 不一致性(inconsistency)의 문제가 야기되며, 일반적으로 추정계수는 下向偏倚(downward bias)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計測誤差의 共分散에 대한 特定假定下에 最尤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함으로써 불일치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만일 經濟行爲의 主體들이 獨立變數의 진정한 값을 모를 경우, 현실적으로 계측된 값에 따라 經濟行態를 결정한다면 위와 같은 추정계수의 불일치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된 자료의 성격에 따라 그 결과로부터 類推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微視와 巨視模型의 連繫性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최선의 자료를 사용하여, 獨立變數의 計測誤差가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計測誤差가 時系列上으로 추정식의 殘差項과 獨立性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논문의 초점이 추정계수의 크기보다는 雇傭吸收力의 減少現象에 대한 假說檢證을 위하여 推定係數가 趨勢變數인  $t$  變數의 函數인가에 맞추어졌다.

資本費用을 나타내는 總量指標가 무엇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말할나위 없이, 金教授의 제안대로 均衡與件下에서  $Y=wL+rK$ 의 定義式을 이용하여  $r$ 을 逆算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겠으나, 이러한 추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관된 자료는 總量經濟分析에서는 물론 微視分析에서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

실적 제약하에서 資本의 賃借率(rental cost of capital)과 근사한 변화추이를 보이는 模擬變數로서 市場의 利子率變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필자의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公金利보다는 私債市場의 利子率이 실제의 市場與件을 더 잘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사용하였으며, 推定函數式의 定式化도 각 독립변수를 積의 形態로 나타내어, 模擬變數 사용에 따라 언제나 야기되는 추정계수의 상대적 크기 문제를 「스케일러」(scalar)문제로 귀착시켰던 것이다<sup>4)</sup>.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價格의 機能이 강화되어 왔다는 흥미로운 주장은 앞으로 더욱 자세한 분석이 뒤따라야 검증될 수 있을 것이며, 필자의 분석이 이러한 假說을 檢定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은 물론 아니다<sup>5)</sup>.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要素價格의 상대적 변화에 우리나라 勞動市場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의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總量模型에서 보더라도 勞動需要 및 供給이 賃金變數의 變化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sup>6)</sup>.

産業構造가 高度化되어감에 따라 勞動의 質에 따른 노동계층간의 대체성이 낮아질 것이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勞動市場은 공급측면에서의 압력이 상존하였으며, 또한 향후 5년 정도 이러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完全雇傭狀態에 미달된 여건하에서는 雇傭增大을 위한 公共政策이 지속될 것이므로, 따라서 勞動市場에서 價格의 需給調節機能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sup>7)</sup>.

4) 金教授의 디플레이터에 관한 논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勞動供給 및 需要 모두 賃金の 函數이나 實質賃金으로 전환할 경우 각기 消費者價格 및 生産者價格으로 다르게 換價하여야 한다는 유사한 論文이 필자의 다른 논문(「失業·賃金·物價에 대한 現況, 實證分析과 政策課題」, 『KDI 分期別 經濟展望』, 1987 2/4~3/4 合併號, pp. 60~81)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필자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w$  및  $r$  變數의 경우, 각기 동일한 디플레이터로 換價하여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5) 賃金の 變化에 따라 勤勞者의 勞動移動率이 높은 현상을 要素價格機能을 포착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要素價格機能은 기본적으로 產業生産 및 就業構造에서 기술·자본·노동 등 生産要素間의 代替성이 얼마나 높은가의 생산함수의 기술적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6) 朴元巖, 「韓國經濟의 分期計量模型」, 『韓國開發研究』, 1986 여름호, pp. 25~66.

7) 마지막으로 「스톡」資料보다는 「플로우」資料를 이용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 金教授의 제안은 지극히 타당하며, 앞으로의 統計資料 蒐集時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